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동향과 시사점

이소양 연구원

## 요약

■ 최근 중국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사실상 AIIB는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금융기구인 것으로 분석됨. 미국은 동맹국의 AIIB 참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한국과 영국 등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향후 AIIB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국제금융체제 다원화,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강화, 중국 위안화 국제화 가속 등이 예상됨.

■ 최근 중국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AIIB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인프라 투자 자금 수요가 약 8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됨.
- 그러나 기존의 국제금융기구인 ADB와 세계은행(WB, World Bank)은 총 자본금이 약 3,830억 달러에 불과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중국은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AIIB 설립을 공식 제안하였고 2014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20개 아시아 국가들과 AIIB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함.
  - 양해각서에 서명한 아시아 국가는 중국 외에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이 있음.
  - 2015년 2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요르단 등이 AIIB에 추가로 가입하면서 AIIB의 창립회원국은 21개에서 26개로 증가함.

- 중국은 500억 달러를 초기 자본금으로 출자하지만 향후 각국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1,000억 달러로 늘려 2015년 말까지 AIIB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중국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는 AIIB가 빈곤 퇴치 및 환경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 자금을 제공하는 ADB, WB와 경쟁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강조하며 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표 1〉 IMF, WB, ADB, AIIB 비교

구분	IMF	WB	ADB	AIIB
주도국	미국	미국	일본, 미국	중국
본부	미국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	필리핀 마닐라	중국 베이징(예정)
설립시기(년)	1945	1944	1966	2015 말(예정)
자본금(억 달러)	8,370	2,230	1,650	1,000 <sup>1)</sup>
회원국 수(개)	188	188	67	52 <sup>2)</sup>
설립 목적	세계 금융안정성 촉진	세계경제 부흥과 개발 촉진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
주요국 지분현황(%)	미국(17.69), 일본(6.56), 독일(6.12), 프랑스(4.51), 영국(4.51) 등	미국(15.85), 일본(6.84), 중국(4.42), 독일(4.00), 영국(3.75) 등	일본(15.67), 미국(15.56), 유럽연합(14.43), 중국(6.47), 인도(6.36) 등	미정 <sup>3)</sup>

주: 1) AIIB 자본금은 중국이 500억 달러를 출자하고, 나머지 500억 달러는 여타 참가국들이 출자하기로 되어 있음.  
 2) AIIB 회원국 수는 창립회원국 참여 신청 마감기한인 2015년 3월 31일까지 집계된 개수임.  
 3) AIIB 주요국 지분현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GDP 등 경제력에 비례하되, 아시아 역내 국가가 75%, 역외 국가가 25%의 지분을 갖는 방안을 감안할 때 중국은 30% 이상의 지분을 가져 최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 사실상 AIIB는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금융기구인 것으로 분석됨.

- '일대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신(新) 실크로드'의 '일대'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상 협력을 기초로 동남아에서 출발해 서남아를 거쳐 유럽-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일로'를 의미함.
-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브 대학 강연에서 인구 30억 명을 포괄하는 '신(新) 실크로드' 구축에 관한 구상을 처음 발표하였으며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공식 제안함.

〈그림 1〉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청사진



자료: 신한금융투자 재인용.

-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추진이 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자국의 균형 발전 및 수출 확대를 기대함.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I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은 주변국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대일로' 전략을 발표함.
  - '일대일로' 전략은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걸친 인프라 개발 및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낙후된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발전 및 철강과 시멘트 등의 잉여 생산능력을 가진 업종의 대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될 경우 향후 5년간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해당 국가의 인프라 투자에 약 5조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이 필요함.
- 한편, 그동안 중국기업은 중국개발은행(CDB, China Development Bank)<sup>1)</sup>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최근 해외진출 대상국<sup>2)</sup>의 정권교체 및 환경오염 문제 증가로 국제금융기구와 협력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됨.

1) CDB는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중국 정부의 외화를 활용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임.

2) 최근 중국기업은 태국, 미얀마, 멕시코, 그리스에서 현지 정권교체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바 있음.

■ 미국은 동맹국의 AIIB 참여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중국을 고립하는 외교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함.<sup>3)</sup>

- 미국은 AIIB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이유로 지배구조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 및 안정장치 부재를 들고 있음.
  - 중국이 전체 지분의 50%를 보유하는 지분구조와 집행부 중심의 운영체계가 국제관례는 물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됨.
  - 환경, 노동, 조달자격 등 국제금융기구 역할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규범들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됨.
- 미국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외교 루트를 통해 AIIB에 대해 불참을 권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AIIB 참여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한국, 호주 등 아시아 동맹국은 2015년 3월 초까지 AIIB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음.

■ 그러나 2015년 3월 미국의 동맹국이자 G7 회원국인 영국의 AIIB 참여 결정 이후 AIIB 참여 국가가 증가하자 미국은 AIIB 참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완화하였음.

- 2015년 3월 12일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지역이 영국기업의 최대 투자 기회라고 평가하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2015년 3월 12~31일<sup>4)</sup> AIIB 참여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영국 외에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터키, 한국, 네덜란드, 브라질, 그루지야, 덴마크, 호주, 이집트, 핀란드,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스웨덴, 대만,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있음.
  - 이에 따라 AIIB의 창립 회원국(예정 창립 회원국 포함) 개수는 기존의 26개에서 25개가 증가한 51개를 기록함.
- 미국은 3월 12일 영국의 AIIB 참여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3월 16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의 AIIB 참여 결정 이후 AIIB의 참여 여부가 주권국이 판단하는 문제라고 밝힘.
- 다만 미국은 AIIB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IMF, WB 등의 국제금융기구와 AIIB간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음.

3) 한국금융연구원(2014. 12), 『AIIB 출범 선언과 향후 논의의 방향』.

4) 2015년 3월 31일은 AIIB의 창립회원국 신청 마감기한임.

- 일본의 경우 AIIB의 창립회원국이 되고 싶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오는 6월 AIIB 설립 협정문 공개 이후 AIIB 참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발표함.

■ 한국의 경우 2015년 3월 26일 국내기업 투자기회 확대 및 통일시대 대비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AIIB에 창립 회원국(예정)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함.

- 한국의 AIIB 참여로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비교우위를 가진 한국기업이 8조 달러 규모의 아시아 인프라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sup>5)</sup>
- 한국은 낙후된 북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아개발은행(NEADB,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설립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한 AIIB는 NEADB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AIIB는 한국이 창립 회원국(예정)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이며 한국이 AIIB에서 유력한 지분율을 확보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향후 AIIB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국제금융체제 다원화,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강화, 중국 위안화 국제화 가속 등이 예상됨.<sup>6)</sup>

- 현재 미국은 IMF, WB, ADB에 대한 지배를 통해 국제금융체제를 독점하고 있으나 중국은 AIIB 설립이 국제금융시장의 다원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함.
  - 미국은 IMF와 WB에서 각각 17.69%와 15.85%의 지분율을 보유하면서 유일한 거부권을 갖고 있으며 ADB에서도 15.56%의 지분율로 일본의 15.67%와 버금가는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음.
  - 반면 중국은 IMF와 WB에서는 물론 ADB에서도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sup>7)</sup>에 비해 발언권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2010년 신흥국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IMF 지분 개혁안은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으나 미국 국회의 반대로 4년째 표류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도화선이 되었음.
- AIIB는 빈곤퇴치 및 환경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는 ADB, WB와 달리 인프라 투자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어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됨.

5)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2015. 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가입 결정 환영』.

6) Cecilia Tortajada, Asit K Biswas(2014, 10), "AIIB: Myths, vested interests, reality".

7) IMF에서 발표된 2014년 세계 GDP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10조 3,554억 달러로 미국(17조 4,163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위에 위치한 일본 GDP(4조 7,698억 달러)의 2배를 초과한 수준임.

- 중국은 AIIB 설립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위안화 국제화 가속의 계기될 것으로 기대함.
  - AIIB 설립으로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AIIB 설립 이후 위안화로 결제 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 **kiri**